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시점 2025. 8.25.(월) 11:00 < 8.26.(화) 조간 > 배포 2025. 8. 25.(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협상 개최

- 8.25(월) ~ 27(수), 서울

- 상품, 원산지, 통관, 지식재산권, 무역장벽 등 7개 분과 협상 -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협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장	손호영 (044-203-5830)
		담당자	사무관	박희경 (044-203-58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